



즉시 배포용: 2019 년 1 월 2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이 대중교통 노동자들을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 발표**

**대중교통 노동자를 공격한 죄로 기소된 범죄자들은 D 등급 중죄로 분류**

**현행 보호안의 적용대상인 노동자의 범주를 확장하여, 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시영기관 및 주 전역의 공항까지 포함**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노동자들의 보호 범주 확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에 작업 구역 안전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 시행할 권한 부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뉴욕주 대중교통 노동자들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조항으로 인해, 대중교통 노동자를 공격한 죄로 기소된 범죄자들은 D 등급 중죄로 분류됩니다. D 등급 범죄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달러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오직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특정 노동자들만이 이러한 보호조치의 대상입니다.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있는 범주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에 고용된 고속도로 노동자와 하청업자, 시영 고속도로 노동자와 하청업자 등은 물론 주 전역의 공항 노동자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자 범주 확대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더불어 이 제안안은 작업 구역에 승인없이 침입하여 고속도로 노동자를 위협하는 모든 운전자가 3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극악하게 대중교통 노동자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현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인 노동자의 범주를 확대하여, 우리는 미래에 폭행 발생을 방지하고, 뉴욕의**

대중교통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사법 집행기관에 이러한 범죄자들의 책임을 묻는 일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행 뉴욕주 형법에 따르면, 열차 운행사, 버스 운전사, 검표원, 안내원, 열차요원 등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특정 고용인을 공격할 경우 D 등급 중범죄로 분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된 이 제안안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노동자의 범위는 역사 승객 보조원, 기차나 버스의 요금 수령 및 표 판매의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 승객 서비스 고용인을 비롯해, 환승 신호 시스템과 지상철 노선, 지하철 노선, 환승역 구조, 역 부지의 유지, 보수, 검수, 중재, 검사, 청소 등을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같은 보호의 적용 범위는 주 교통부(State DOT)와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에 고용된 노동자 및 하청업자, 시영 고속도로 노동자 및 하청업자는 물론, 터미널 청소원, 캐빈 청소원, 시설 청소원, 휠체어 보조원, 짐 담당 직원, 포터, 매표직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안전 요원, 행렬 관리 직원, 셔틀버스 운전사 혹은 공항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모든 직원 등 주 전역의 공항 노동자로 늘어납니다. 보호대상 노동자는 뉴욕주의 공장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모든 공항, 모든 기관, 회사/벤더(공공 혹은 민영)에 고용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Fernando Ferrer 회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통 노동자들은 매일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운송하며, 그들이 일을 할 때 전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예산은 매우 필요했던 보호를 제공하여 우리의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 및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부 예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거대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운전자들에게 주 전역의 고속도로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운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모든 운전자를 위해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20 행정부 예산에 단지 그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근면하고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포함시킨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강화된 처벌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 중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의 Rick Cotton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 공항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의욕이 있으며 안전하게 보호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보안 노력을 강화시키고 고객들을 숙련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공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작년의 성과와 함께, 직원들에게 발생 가능한 폭력에 대한 보호망을 제공하는 일은 이직율을 크게 줄이고 사기를 높이며 911 테러 이후의 세계에서 숙련 노동자들을 공항 운영과 보안의 중요 조력자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 회장 대행인 Mark J.F. Schroed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일은 뉴욕의 도로를 사용하는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그들은 더욱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일과가 끝난 후 귀가를 바라는 가족들이 있고, 이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통부(DOT) 및 기타 기관과 자랑스럽게 협력하여 운전자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고속도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공무원 협회(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CSEA)의 Danny Donohu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작업 구역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매일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고속도로 노동자 폭행과 운전자의 작업 구역 침입은 놀랄만한 수가 보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지역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소유 및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보고되었으며, 이 역시 제안된 법안에 의한 보호대상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부(DOT)는 610 건의 작업 구역 침입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운전자가 고속으로 신호수를 지나가거나 작업 구역을 지나쳐간 일 등이 포함됩니다.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된 법안에 따라,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대중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속도로 작업 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운전자 인식을 제고하고 작업 구역 안전을 강화하며, 과속, 작업 구역의 미승인 침입, 고속도로 노동자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작업 구역 사고의 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작년 뉴욕주 교통부(NYS DOT)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신호수 인력 존중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와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공익광고(PSA) 작업 구역 안전 캠페인인 “신호수도 가족이 있습니다(Flaggers have families too)”는 신호수가 교통 혼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한 후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안전하게 귀가하고 싶어할 뿐입니다. 이 공익광고(PSA)는 [이곳](#)과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